

허무주의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

- 니체 철학을 중심으로

양 대 증**

주제분류 독일근대철학, 형이상학, 윤리학, 가치론

주요어 니체, 허무주의, 주권적 개인, 도덕, 가치

요약문

현대철학의 화두는 의미의 문제, 즉 전통가치로부터의 이탈과 새로운 가치창출의 문제이다. 인간은 그것에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한다. 단지 의미 없는 고통의 지속이 문제시될 뿐이다. 허무주의는 이제껏 자신의 삶을 규제하던, 행위와 사고의 준거와 원칙이 깨지는 순간에 도래하는 가치박탈과 의미상실에 기반을 둔 정신인성 질병의 징후이다. 본고에서는 니체가 진단하는 유럽 허무주의의 태동이유와 역사를 살펴보고, 그것이 인류 정신사에서 초래된 필연적 사건이자 인류가 맞닥뜨린 미증유의 문제임을 밝힌다. 포스트모더니즘, 혹은 트랜스 휴머니즘으로 설명되는 현대성이 갖는 부정적 함의의 극복가능성이 이 의미의 문제의 해결에 달려있다. 살만한 세상, 재미있는 세상, 존재감이 향상돼 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허무주의의 극복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소비의 문 앞에서 그치고 마는 현대의 욕망들은 인간 왜소화의 결과이자 실존의 무의미를 채워보려는 불안의 현현양식 중 하나이다. 인간의 완성을 위한 첫 걸음인 고양된 문화적 차원으로의 비약을 방해하는 걸림돌인 허무주의의 극복을 위해 모든 인간 속에 잠재돼 있는 의미창출가능성을 촉발할 방도를 모색해 본다.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61-A00008).

**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1. 들어가는 글: 이제 아무도 피라미드를 건축하지 않는다.

20세기와 21세기 철학의 화두는 의미의 문제, 즉 전통가치로부터의 일탈과 새로운 가치창출의 문제이다. 인간은 그것에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한다. 직장을 얻기 위한 젊은이들의 자발적인, 하지만 고통스런 스펙관리, 내일을 위해 오늘의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는 저축행위, 저승에서의 행복이나 해탈을 위해 노력하는 종교적 인간들의 현세에서의 고통감수 등이 그 극명한 예라 할 수 있다. 단지 의미 없는 고통의 지속이 문제시될 뿐이다. 허무주의, 허무한 마음은 이제껏 자신의 삶을 규제하던, 행위와 사고의 준거와 원칙이 깨지는 순간에 도래하는 가치박탈과 의미상실에 기반을 둔 정신인성 질병의 징후이다. 본고에서는 니체가 진단하는 유럽허무주의의 태동이유와 역사를 살펴보고, 그것이 인류 정신사에서 초래된 필연적 사건이자 인류가 맞닥뜨린 미증유의 문제임을 밝힌다. 포스트모더니즘, 혹은 트랜스 휴머니즘으로 설명되는 현대성이 갖는 부정적 함의의 극복가능성이 이 의미의 문제의 해결에 달려있다.¹⁾ 살만한 세상, 재미있는 세상, 존재감이 향상돼 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허무주의의 극복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소비의 문 앞에서 그치고 마는 현대의 욕망들은 인간 왜소화의 결과이자 실존의 무의미를 채워보려는 불안의 현현양식 중 하나이다. 인간의 완성을 위한 첫 걸음인 고양된 문화적 차원으로의 비약을 방해하는 걸림돌인 허무주의의 극복을 위해 모든 인간 속에 잠재돼 있는 의미창출

1) 20세기 후반에 행해진 허무주의에 대한 지적 대응인 포스트모더니즘이 허무주의의 정서, 즉 삶의 무의미성과 무가치성을 일반화시켜 “가치창조의 문화적 힘을 쇠약하게 만드는 새로운 독”으로 작용했을 뿐, 허무주의의 내적인 논리를 분석해 그것을 극복하는 일에는 태만했기에, 여전히 니체의 허무주의에 대한 진단이 유의미한 현대적 도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진우, 「21세기와 허무주의의 도전 - 니체 사유의 전복성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대응」, 『범한철학』 제21집, 범한철학회, 2000, 77-101쪽 참조.

가능성을 촉발할 방도를 모색해 본다.

허무주의(Nihilismus)의 어원인 라틴어 nihil은 어떠한 존재가(存在價)도 갖지 못하는 비존재, 즉 무(無)를 뜻한다. 無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어떤 것을 지칭하는 단어로 어떠한 형태의 존재가능성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존재론적으로 존재의 결성(缺性)을 뜻하는 것이어서 인식하거나 개념화하기가 불가능한 사태를 지칭한다. 그러나 질풍노도 시기의 독일 극작가 클링거(F. M. Klinger)의 말처럼 철학자들은 無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 왔고 그것을 인식 가능한 어떤 것으로 만들려는 귀여운 노력을 경주해 왔다.²⁾ 물론 인간의 사고 역시 자연의 사실성에 속하는 것이므로 생각된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실재하는 무엇으로 취급될 수 있다.³⁾ 둔스 스코투스(Johannes Duns Scotus)가 키메라처럼 단순히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無라 불리는 것과 형식적 규정불가능성을 이유로 절대적으로 존재 불가능한 無를 구별한 것으로부터⁴⁾ 실제로 존재하는 것(ens reale)과 상상할 수 있는 것(ens imaginarium), 혹은 완전히 허구인 어떤 것(ens fictum)을 구별하고, 모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존재가 불가능하고 모순을 포함하는 절대적인 無와 단순한 가능성의 표현일 뿐인 결성(缺性)으로서의 無를 구별하는 것은⁵⁾ 그 세월만큼 오랜 논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이었다.⁶⁾ 그러나 이 오래

2) Klinger, Friedrich Maximilian, *Betrachtungen und Gedanken über verschiedene Gegenstände der Welt und der Literatur, Zweiter Teil*, Nr. 418, Sämtliche Werke Bd. 12, Cotta, Stuttgart und Tübingen, 1842, 32쪽 참조.

3) Seneca, Lucius Annaeus, *Epistulae morales ad Lucilium*, 58. 15 참조.

4) Duns Scotus, *Lectura I*, d. 36, q. un., n. 39. *Opera Omnia*, Civitas Vaticana, XVII, 475쪽 참조; Ders., *Ordinatio I*, d. 43, q. un., n. 16-18, a. a. O. VI, 359-361쪽 참조.

5) Baumgarten, Alexander Gottlieb, *Metaphysica* § 7, 3. Auflage, Halle, Magdeburg, 1750, 54쪽 참조.

6) 無 개념을 규정하는 또 다른 시도는 칸트를 통해 행해졌다. 그는 대상이 없는 공허

된 철학적 화두가 가치의 문제와 관련될 때, 철학자들의 귀여운 시도의 끝은 이제 더 이상 사랑스럽거나 애교 있지 못하다.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것들이 인간의 삶을 규제해오고 정향점이자 행위의 근거로 기능하던 가치들이라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인간이 의지해 오던 가치들이 상실된 순간 도래하는 것은 권태와 정위상실, 불안이다. 우리는 더 이상 피라미드를 세우지 않는다. 긴 호흡을 필요로 하고 세대와 세기를 넘어 진행되는 일들은 이제 인간의 사업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빨리 행위와 감정의 결과를 보기 원한다. 가치들을 세밀히 평가하고 선택하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두려워한다. 우리는 약속하기를 꺼리며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 기꺼이 사실들과 가공된 환상 뒤에 숨는다.

19세기의 인간은 비판적인 계몽의 길을 통해 형이상학과 종교와 도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비판적 계몽을 통해서 인간이 도달한 곳은 과연 어디인가? 이 해방을 통해 “생명에 대한 가장 내적인 부정인 도덕적인 부정이 극복”되고 실제로 “생의 자극이 성장”했는가? 우리가 이미 부정에의 의지를 극복하고 그 반대편에 도달했는가? 우리가 극복한 도덕, 즉 지금껏 단지 그런 방식이 아니고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도 가질 수 없었던 도덕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현대성의 문제가 이제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철학, 예술, 종교 등 다양한 변형 속에서 활동해온 금욕주의적 이상이 오랫동안 인간의 삶을 지배해 왔던 유일한 도덕이었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에 목적과 내용을 주는

한 개념으로써의 無(ens rationis)와 개념의 빈 대상으로서의 無(nihil privativum), 대상이 없는 공허한 직관형식으로써의 無(ens imaginarium) 그리고 개념도 없고 대상도 없어 無라는 개념 자체가 소멸되는 nihil negativum을 구별하고 있다. Kant, Immanuel, *Kritik der reinen Vernunft* B 348, Werke in Zehn Bänden, Bd. 3,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stadt, 1983, 307쪽 참조.

7) Nietzsche, Friedrich, *Nachgelassene Fragmente 1882-1884*, *Kritische Studienausgabe* hrsg. von Giorgio Colli und Mazzino Montinari(KSA), Bd. 10, 2(5), 44쪽.

것들을 모두 제거해가면서 자신의 삶에 반생명적이고 현실 도피적이며 허무주의적인 복수를 행해온 부조리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금욕주의적 이상은 어쨌든 의미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인간에게 죄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고통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다. 그리고 인류는 이 왜곡되었지만 유일한 의미를 부여잡고 자신의 왜소해진 삶을 받아들이려 애써왔다. 그러나 도착(倒錯)된 도덕으로부터 해방되면서 단지 더 좋은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던 도덕이 달아 놓았던 “자살적인 허무주의로 통하는 문”⁸⁾이 다시 열렸다. 그리고 이것은 잠정적으로 의미를 구하는 마지막 수단이었던 도착된 도덕 안에 내재돼 있었던 필연적인 귀결이다. 인류가 숭배해 온 최고의 가치들이 그 안에 마지막 결과로 가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⁹⁾ 그러나 큰 위기 속에서 인간의 의지는 더 확고해지고 해석의 지평 역시 확대될 수 있다. 현대인은 이제 니체와 함께 중대한 실존적 결정이 내려져야 할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2. 문제의 발단: 신의 죽음

자신의 시대에 대한 니체의 진단을 집약하는 개념이 허무주의이다. 니체가 프랑스의 문화비평으로부터 차용하는 이 18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개념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의 목적으로써 단지 無만을 알고 있을 뿐인 상태를 지칭한다. 그것은 그 속에서 “결정적인 쇠락과 현존재에 대한 증오의 징후”¹⁰⁾가 분명하게 목도되는 의지의 도착(倒錯) 상태이다. 허무주

-
- 8) 니체, 프리드리히, 『도덕의 계보』, 니체전집 14, 김정현 옮김, 책세상, 2009, 540쪽.
 9) Heftrich, Eckhardt, “Moral - das komplexe Gebilde” in: *Nietzsches tragische Größe*, Vittorio Klostermann, Frankfurt am Main, 2000, 85쪽 참조.
 10) Löwith, Karl, *Von Hegel zu Nietzsche. Der revolutionäre Bruch im Denken des neunzehnten Jahrhunderts*, Felix Meiner, Hamburg, 1995, 208쪽.

의는 또한 전통적인 이상들에 대한 믿음과 함께 삶에 확신을 주는 모든 토대들이 사라진 상황을 뜻한다. 현대인은 차라투스트라의 그림자와 같이 너무 많은 수수께끼를 풀며 자신을 계몽했고 이제 어떠한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¹¹⁾

문제의 발단은 신의 죽음이라는 사건이다. 니체의 『즐거운 학문』에서 신의 죽음을 선포하는 광인이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 가능해진 새로운 자유를 기뻐하지 않고 신을 애도한 사실을 우리는 쉽게 잇는다.¹²⁾ 형이상학적 진리의 근거가 결정적으로 소멸되었음을 알리는 광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차 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선의 이데아인 태양은 하위단계의 인식에 존재와 확실성을 부여하는 근거이자 인식행위의 최종 목적이다. 신의 죽음은 이 태양이 이제 인간의 조건에서 빠져 나갔으며 새로운 차원의 철학함과 의미추구가 인간에게 강요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지구를 태양으로부터 풀어 놓았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한 것일까? 이제 지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모든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뒤로 옆으로 앞으로 모든 방향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직도 위와 아래가 있는 것일까? 무한한 허무를 통과하고 있는 것처럼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허공이 우리에게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밤과 밤이 연이어서 다가오고 있는

11) 니체, 프리드리히,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전집 13, 정동호 옮김, 책세상, 2010, 446-451쪽 참조.

12) 현대성이 감당해야 하는 가치의 혼돈에 대한 니체의 염려에 대해서는 Ottmann, Hennig, *Philosophie und Politik bei Nietzsche. Monographien und Texte zur Nietzsche-Forschung*, Bd. 17, Berlin, New York, 1999, 216-219쪽; Vonessen, Franz, *Krisis der praktischen Vernunft. Ethik nach dem "Tod Gottes"*, Südmarkverlag, Heidenheim, 1988, 178-190쪽 참조.

것이 아닐까?”¹³⁾

카뮈(Albert Camus)의 말처럼 극단적인 무신론 자체는 아직 허무주의의 걱정스러운 징후가 아니다. 오히려 “있는 것을 믿지 못하고, 발생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무능력”¹⁴⁾이야말로 허무주의의 징후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피히트(Georg Picht)는 시장에서 신의 죽음을 선포하는 광인에게 조소를 보내는 현대인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들은 살아있는 신의 실제성도, 신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사건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현실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이것도 저것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것도 저것도 그들의 삶에 어떤 형태를 줄 만큼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¹⁵⁾ 바로 이렇게 현실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는 무능력, 다시 말해 “**우리의 정신에 대한 절대적인 회의와 실제적인 방임**”¹⁶⁾이야말로 니체가 진단하는 허무주의의 중요한 증거이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음 두 세기의 역사이다. 나는 다가오고 있으며, 더 이상 다르게 올 수 없는 것을 기술한다 : **허무주의의 도래**. 이 역사는 지금 이미 말할 수 있다 : 왜냐하면 필연성 자체가 이미 여기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미래는 이미 백여 가지 징후 안에서 말해지고 있으며, 이 운명은 도처에서 자신을 고지한다 (.....) 우리의 유럽 문화 전체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한 세기 한 세기 자라났던 긴장의 고문을 받으며 마치 대혼란으로 내닫듯 움직이고 있다 : 동요하고 난폭하게 허둥대고 있다 : **종말로 가기를** 원하며, 더 이상 숙고하지 않고, 숙고하기를 무서워하는 폭풍과도 같이.”¹⁷⁾

13) 니체, 프리드리히, 『즐거운 학문』, 니체전집 12, 안성찬·홍사현 옮김, 책세상, 2005, 200쪽.

14) Camus, Albert, *Der Mensch in der Revolte*, Rowohlt, Hamburg, 1969, 57쪽.

15) Picht, Georg, *Nietzsche*, Klett-Cotta, Stuttgart, 1988, 327쪽.

16) 니체, 프리드리히, 『유고(1882년 7월-1883/84년 겨울)』, 니체전집 16, 박찬국 옮김, 책세상, 2005, 806쪽.

니체는 인간이 자신의 실존의 자리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허무주의를 역사적 필연성을 가지고 발생한 유럽문화의 위기로 파악한다. 현대인은 실제로 신의 죽음 이전보다 더 춥고 어두우며 중심이 없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 신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현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신의 죽음으로 도래한 의미의 진공상태가 현대인의 마음의 환경이다. 그때까지 인간의 구체적인 삶을 규제하고 가치의 준거로 작용하던 전통과 권위, 도덕과 형이상학적 진리 등 서양철학사의 주역을 차지해왔던 거대 담론들의 근거 없음이 폭로되어 가치의 영역에서 의미진공상태가 발생한 일이 신의 죽음으로 대별되는 현대적 사건이다. 허무의 경험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양식이 바로 구체적인 대상을 지적할 수 없는 섬뜩한 불안이다. 인간의 현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이 불안은 근거가 없어진 후 심연위에 존재하는, 전체로써 통제를 벗어난 모든 존재자들에게서 드러난다.¹⁸⁾

어떠한 형이상학적 안전장치도 가지지 못한 인간은 철저한 외로움과 공허, 불안정, 권태와 무가치함 속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뷔흐너(Karl Georg Büchner)의 소설 『렌츠』의 주인공처럼 어떠한 애증도, 희망도 없이 끔찍한 공허와 이것을 채우려는 부단한 불안에 시달리는 인간이 낭만적 허무주의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러운 일은 이 19세기의 불안한 유령이 몇몇 개인의 고안이 아니라 우리시대 전체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치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길고 엄청난 일련의 붕괴, 파괴, 몰락, 전복”이 이 사건을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이유는 죽은 신에게 기대서 “모든 것이, 유럽의 도덕 전체가 자라났기 때문”이다.¹⁹⁾

17) 니체, 프리드리히, 『유고(1887년 가을-1888년 3월)』, 니체전집 20, 백승영 옮김, 책세상, 2005, 518쪽.

18) Heidegger, Martin, “Was ist Metaphysik”, in: *Wegmarken*, Vittorio Klostermann, Frankfurt am Main, 1976, 111-112쪽 참조.

19) 니체, 프리드리히, 『즐거운 학문』, 319쪽.

아이러니하게도 허무주의를 불러온 신의 죽음은 기독교를 통해 양육되고 준비되었다. 니체는 기독교의 신 개념 안에서 무가 신격화되고 무에의 의지가 신성시 되고 있다는 점을 퇴폐의 증거로 들고 있다.²⁰⁾ “신이 삶에 대한 미화이자 영원한 긍정이 아니라 삶에 대한 반박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 기독교적 신 개념의 특징이자, 기독교의 신을 “지상에 실현되었던 것 중에서 가장 부패한 신 개념 중 하나”로 낙인찍게 만드는 이유이다.²¹⁾ 니체가 데카당스(Décadence), 타락이라 부르는 현상은 생명 있는 어떤 것이 자신의 생명의 본능에 역해서 생명의 발현과 고양에 불리한 것들을 선택하는 일이다.²²⁾ 생명은 “성장을 위한 본능, 지속을 위한 본능, 힘의 축적을 위한 본능, 힘을 위한 본능”²³⁾이다. 이러한 생명의 본능이 부인되는 곳이 바로 타락의 현상이다. 니체에게서 허무주의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징후에 불과하다. 그것은 생명의 퇴폐와 노쇠, 즉 “생리적 데카당스의 표현”²⁴⁾이다. 무에의 의지가 삶에의 의지보다 우세해진 것에서 우리는 데카당스를 알아챌 수 있다.²⁵⁾ 허무주의에 이르는 긴 인류사에서 니체가 발견하는 기이한 현상은 거대담론들이 진행되고 인류가 중요시 여겨온 최고의 가치들이 데카당스의 가치이며, 이러한 허무적 가치들이 가장 성스러운 이름으로 생명을 지배해왔다는 사실이다.²⁶⁾ 이웃사랑의 종교인 기독교가 중시하는 동정(同情)은 생명의 에너지를 극

20) 니체, 프리드리히, 『안티크리스트』, §18, 니체전집 15, 백승영 옮김, 책세상, 2009, 234-235쪽 참조.

21) 같은 곳.

22) 니체 철학을 관통하는 총체적 생명의 다양한 특성들에 대해서는, 양대중, 「니체 철학에서 본 생명의 문제」, 『철학연구』 제39집,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10, 103-130쪽 참조.

23) 니체, 프리드리히, 『안티크리스트』, §6, 219쪽.

24) 니체, 프리드리히, 『유고(1888년 초-1889년 1월 초』, 17(8), 니체전집 21, 백승영 옮김, 책세상, 2006, 403쪽.

25) 같은 책, 14(123), 123쪽 참조.

26) 니체, 프리드리히, 『안티크리스트』, §6, 219쪽 참조.

대화하는 강장한 걱정과 대립하는 위험한 가치이다. 동정은 “몰락에 이르러 있는 것을 보존하고, 삶의 상속권을 박탈당한 것과 삶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을 위해 싸우는 (.....) 허무주의의 **실천**”이자 “비참함을 **곁절**로 만드는 것이며 비참한 모든 것을 **보존하는 것으로서** 데카당스의 증대를 위한 핵심도구의 하나”로 이해된다.²⁷⁾ 이 데카당스의 도구인 동정은 ‘피안’, ‘신’, ‘참된 삶’, ‘니르바나’, ‘구원’, ‘지복’ 등의 이름으로 무를 설득하는, “생명에 적대적인 성향”이자 현대성이 앓고 있는 위험한 병이다.²⁸⁾

따라서 몇몇 근대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이 무에서 영혼의 안식과 평화를 읽어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크루즈는 갈멜산의 스케치 옆에 다음과 같은 단상을 적고 있다: “갈멜산의 완벽한 정신의 길(...) 내가 무안으로 들어선 이래로 나는 나에게 아무 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을 경험한다.”²⁹⁾ 자기 자신을 구출하기를 원하는 인간의 의지가 “아무것도 의욕하지 않는 것보다는 오히려 허무를 의욕하고자 한다”³⁰⁾는 것이 금욕주의적 정신의 본질이라는 니체의 웅변적인 명제에 대한 증거처럼 읽히는 구절이다.

금욕주의적 기독교의 도덕이 길러낸 지적 성실성은 이제 이제껏 가능한 유일한 해석으로 여겨져 왔던 도덕적 세계관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그것은 자신을 길러온 도덕의 꼬리를 물고 “오랫동안 각인돼왔던 거짓에 대한 통찰”을 허무주의에 이르는 자극으로 삼는다.³¹⁾ “오랫동안 힘이 **허비되었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³²⁾ 가치, 의미, 소망가능성을 철저히

27) 같은 책, §7, 220쪽.

28) 같은 곳, 220쪽 이하.

29) De la Cruz, Juana Inés, *Obras completas*, hrsg. von J. V. Rodriguez, Madrid, 1980, 152쪽 이하 참조.

30) 니체, 프리드리히, 『도덕의 계보』, 니체전집 14, 김정현 옮김, 책세상, 2009, 541쪽.

31) Nietzsche, Friedrich, *KSA Bd. 12*, 211쪽 참조.

부정하도록 부추긴다.

“하나의 해석이 몰락한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해석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마치 실존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마치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보인다.”³²⁾

“엄청난 힘이 바쳐진 세계 해석의 실행 불가능성 - **모든** 세계 해석들이 거짓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³⁴⁾

허무주의는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감정의 보편화이고 인간의 용기 없음과 약함이 일반화된 상태이다. 자신의 삶이 가진 의미의 문제로 아파하는 고통당하는 짐승인 인간이 유일한 가치의 상실로 무의미한 고통에 내던져진 부조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3. 니힐리즘의 양가적 성격

19세기는 기독교가 중시해온 덕목인 진리 추구하고 지적 성실성의 극점에서 인간의 이성이 그간 이성중심주의적 문명의 정향점과 기준점이 되었던 절대적 진리의 가상적 성격을 파악하고 폭로한 시대이다. 그리고 삶이 가상적 진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인간이 그것들을 창조하고 ‘신’, ‘진리’ ‘자기 동일자’ 등의 커다란 이름으로 포장해 절대화해 왔었다는 비극적 사실을 깨달은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철학자들의 오래된 편견을 편견으로 통찰한 후에도 니체는 이 오래된 편견들이 삶에 유용하게 복무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그러한 통찰과 인정 자체가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가지는 가능성이자 미래로 열린

32) 니체, 프리드리히, 『유고(1887년 가을-1888년 3월)』, 11(99), 니체전집 20, 342쪽.

33) 니체, 프리드리히, 『유고(1885년 가을-1887년 가을)』, 5(71), 니체전집 19, 이진우 옮김, 책세상, 2005, 265쪽.

34) 같은 책, 2(127), 155쪽.

승리의 하나라는 것 역시 기입하고 있다.

“(이제까지 행해진 유용한) 잘못된 판단을 포기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며, 삶을 부정하는 것이리라. 삶의 조건으로 비진리를 용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방식으로 습관화된 가치 감정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일을 감행하는 철학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선과 악의 저편에 서 있게 된다.”³⁵⁾

인용문에서 저항의 대상으로 표기된 “위험한 방식으로 습관화된 가치 감정”은 절대적 진리의 실재성에 대한 믿음이다. 인간의 삶에 방향과 근거를 부여해 오고 절대적이고 완전한 가치를 갖는 참된 실체로 간주돼왔던 형이상학의 큰 개념들이³⁶⁾ 생존과 번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자 전반에 대한 인간의 한 관점일 뿐이라는 인식과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긍정이 근대적 승리의 내용이다. 김주휘는 니체가 진단한 근대의 야누스적 성격의 분석을 통해 근대가 가지는 새로운 가능성과 위험성을 지적하는 글에서 소크라테스의 프로그램을 따라온 알렉산드리아 문화의 정점으로 파악된 근대가 그 문화의 가장 발전된 도구인 과학을 이용하여 자신의 꼬리를 물어 스스로를 부정하는 이 상황을 “비판적 반성이 가능하게 된 계몽의 시대”로 읽는다.³⁷⁾ 신의 죽음으로 상징되는 진리의 가상성과 세계의 생성적 성격에 대한 파악은 근대인의 정신적 힘이 증대한 결과이며 ‘자유정신’이 출현하는 계기가 된 사건으로 어떤 시대에도 가능하지 않았던 인간의 위대성의 실현으로까지 완성되어야 할 사건이다.³⁸⁾ 같은 맥락에서 오토만(Hennig Ottmann)은 니체의 자유정신의 편력을 “허무주

35) 니체, 프리드리히, 『선악의 저편』, 니체전집 14, 김정현 옮김, 책세상, 2009, 19쪽.
36) Jaspers, Karl, Nietzsche. *Einführung in das Verständnis seines Philosophierens*, Walter de Gruyter, Berlin, 1947, 114쪽 참조.
37) 김주휘, 「니체와 야누스적 근대」, 『니체연구』 제20집, 한국니체학회, 2011, 105-106쪽 참조.
38) 같은 글, 101쪽 참조.

의에 이르는 계몽의 길”³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신의 죽음이라는 사건의 긴박함과 연쇄반응의 정도에 대한 두려운 성찰이 있기 전 그 최초의 결과 속에서 니체가 느끼는 첫 감정은 “새롭고 표현하기 어려운 빛, 행복, 안도감, 유쾌함, 격려, 아침놀”⁴⁰⁾과 같은 것들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철학자들, ‘자유로운 정신들’은 ‘늙은 신이 죽었다’는 소식에서 새로운 아침놀이 비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 우리의 가슴은 감사, 놀라움, 예감, 기대로 흘러넘치고 있다. 마침내 우리에게 비록 밝지는 않을지라도 수평선이 다시 열린 것이다. - 마침내 우리의 배가 다시 출항할 수 있게, 모든 위협을 향해 출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식의 모든 모험이 다시 허락되었다. 바다가, 우리의 바다가 다시 열렸다. 그러한 ‘열린 바다’는 아마도 일찍이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을 것이다.”⁴¹⁾

그러나 육지를 없애고 미지의 도덕의 세계를 찾아 떠난 철학자들이 항상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간 억눌려 있었던 인간의 위대성이 드러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신의 죽음은 동시에 “인간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하나의 병”⁴²⁾이다. 비극 시대의 그리스인들처럼 충분히 강한 자들에게서는 인간의 위대성의 만개로 이어질 수 있는 절대적 진리의 실재성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그러나 자신의 생명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약한 자들에게는 절망과 파괴와 혼돈의 끔찍한 대재앙으로의 절주를 의미할 수 있다.⁴³⁾ 고향을 불태우고 새로운 세계를 찾아 나서는

39) Ottmann, Hennig, *Philosophie und Politik bei Nietzsche*, 217쪽.

40) 니체, 프리드리히, 『즐거운 학문』, §343, 320쪽.

41) 같은 곳.

42) 니체, 프리드리히,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I』, 니체전집 7, 김미기 옮김, 책세상, 2005, 13쪽.

43) 김주희, 「니체와 야누스적 근대」, 101쪽 참조.

일에 동반되는 위험과 좌절에 대해 니체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려 보여주고 있다.

“**무한한 수평선** - 우리는 육지를 떠나 출항했다! 우리는 다리를 건너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뒤의 육지와와의 관계를 단절했다! 그러니 작은 배여, 앞을 바라보라! 네 곁에는 대양이 있다. 대양이 항상 포효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 그것은 비단과 황금, 재화의 꿈처럼 그곳에 펼쳐져 있다. 하지만 언젠가 이 대양이 무한하다는 것을, 그리고 무한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올 것이다. 오 한때 자신을 자유롭다고 느끼다가 이제 이 새장의 벽에 몸을 부딪고 있는 새여! 마치 육지에 더 많은 **자유**가 있었다는 듯 육지에 대한 향수가 너를 사로잡는다면 그것은 슬픈 일이다! ‘육지’는 이제 없다!”⁴⁴⁾

돌아갈 육지는 없고 새로운 대륙은 보이지 않는다. 지친 탐험가가 항해와 여행 전체를 절망적으로 바라보고 난파하게 될 위험은 크다. 니체는 필연적으로 도래하는 허무주의가 가치 일반에 대한 비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절대적 진리의 상실 후에 상대적인 다양한 가치들을 시험하다 가치 전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는 니체 이후 두 세기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근대인간은 시험 삼아 때로는 이런 가치를, 때로는 다른 가치를 믿어보며, 그런 다음 놔버린다 : 살아남고 내버려진 가치들의 범위는 계속 짝 차가고 : 가치의 공허와 빈곤이 점점 더 깊이 느껴진다 : 이 움직임은 멈추지 않는다 (.....) 마침내 근대인간은 가치 일반에 대한 비판을 감행한다 : 그는 가치의 연원을 충분히 알아차리며 : 더 이상 아무런 가치도 믿지 않을 만큼 충분히 알아차린다 : 파토스가, 새로운 전율이 거기에 있다.....”⁴⁵⁾

44) 니체, 프리드리히, 『즐거운 학문』, §124, 199쪽.

45) 니체, 프리드리히, 『유고(1887년 가을-1888년 3월)』, 11(119), 니체전집 20, 354쪽.

니체는 허무주의를 체득한 현대인의 시험적 삶의 상황이 가장 깊은 자기 반성이 필요한 큰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위기에서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가치의 공허와 빈곤 속에서 인간이 상실한 것은 지속에 대한 의지와 믿음이다. 현대인이 시험하다 버리는 새로운 가치들과 화려한 가면들 뒤에 삶에 지치고 피로한 병자가 숨어 있다면 그것은 확실히 불행한 일이고 위험한 상황이다.⁴⁶⁾ 먼 곳을 내다보고 건설하는 용기와 능력이 상실된 시대가 바로 배우들이 지배하는 현대, 허무주의 시대의 실상이다.⁴⁷⁾ 세대와 세기를 넘어 천년을 염두에 둔 거대한 계획에 복무하려는 자가 사라진 시대가 현대의 위험한 모습인 것이다.

필자는 『비극의 탄생』에서 나타난 비극적 문화의 구조에 대한 사유의 구도, 즉 아폴론적 가상의 창조를 통한 디오니소스적 심연의 구원이라는 구도가 니체 사상을 일관적으로 흐르는 생각이라는 김주희의 견해에 동의한다.⁴⁸⁾ 과학을 통해 진리의 가상성을 발견한 근대는 인간의 위대성이 발현되고 예술과 인식을 중시하는 섬세한 고급문화가 창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시대이다. 진리의 가상성이 밝혀지고 삶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고 세계가 멸망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니체의 말처럼 “사랑의 방식이 바뀌는 것일 뿐”이지 사랑은 계속된다.⁴⁹⁾ 비밀스런 여인, 우리에게 의심을 품게 만드는 여인에 대한 사랑이 더 강렬할 수 있는 것처럼 문제가 되어버린 삶에의 사랑은 더 깊게 계속될 수 있다. 근대가 위기인 것

46) 니체, 프리드리히, 『즐거운 학문』, §377, 384쪽 참조.

47) 같은 책, §356, 346쪽 참조.

48) 김주희, 「니체와 야누스적 근대」, 112쪽 참조. 『비극의 탄생』이 인식에 기인한 허무주의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실존적 시도에 대한 철학적 의제를 다룬 책이라는 전제하에 비극이 가지는 치유의 구조를 분석한 글로는: 양대중, 「『비극의 탄생』과 아리랑에 나타난 치유의 구조」, 『마음과 마음 - 동서 마음 비교』, 마음인문학 학술총서 5,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공동체, 2013, 119-155쪽 참조.

49) 니체, 프리드리히, 『즐거운 학문』, § 54, 29쪽.

은 따라서 의미 없는 삶이 문제가 돼 버린 상황이 아니라 과학과 기독교의 교육을 통해 길러진 지적 성실성이 달성해낸 디오니소스적 심연의 드러냄에 상응하는 새로운 아폴론적 창조력, 즉 의미를 창출하는 능력이 따라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⁵⁰⁾

니체는 결국 완결되지 못한 저서, 『힘에의 의지』의 한 계획안에서 유럽 허무주의의 역사를 다루는 장의 제목에 “가치의 투쟁”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다.⁵¹⁾ 가치의 투쟁은 동일한 의미진공상태를 바라보는 생명의 두 가지 양태 사이의 전쟁이다. 허무주의가 가능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위기로 나타나기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건강한 생명이 갖는 조형력, 즉 “가치를 설정하는 인간의 능력”⁵²⁾에 대한 신뢰의 차이이다. 한 쪽에서는 가치의 진공을 자발적인 창조를 통해 새로운 가치로 채울 의지와 힘을 가진 상승하는 생명력을 가진 인간 유형이 있고, 다른 한 쪽에서는 삶에 지치고 피로해진 쇠약한 인간의 유형이 자리한다. 이들 사이의 투쟁이 바로 허무주의를 대하고 벌어지는 가치의 투쟁이다. 이 가치의 투쟁에서 동일한 허무주의가 “정신력의 하강과 퇴행”, 혹은 “상승된 정신력의 징후” 두 가지 중 어떤 것으로 읽혀지느냐를 기준으로 니체는 수동적 허무주의와 능동적 허무주의를 구분하고 있다.⁵³⁾

4. 주권적 개인

너희가 바로 신이라고 선언한 율법의 명제를⁵⁴⁾ 체현시킬 수밖에 없는

50) 김주휘, 「니체와 야누스적 근대」, 112쪽 참조.

51) 니체, 프리드리히, 『유고(1885년 가을-1887년 가을』, 니체전집 19, 304쪽 참조.

52) 니체, 프리드리히, 『유고(1887년 가을-1888년 3월』, 11(183), 니체전집 20, 353쪽.

53) 니체, 프리드리히, 『유고(1887년 가을-1888년 3월』, 9(35), 니체전집 20, 22쪽 참조.

54) 「시편」, 82장 6절; 「요한복음」, 11장 34절 참조.

자가 바로 허무주의의 시대에 나타나는 주권적 개인이다. 니체는 자유정신의 세 가지 변화 중 첫째 변화인 낙타에서 사자로의 변화를 “스스로 정의하고 스스로 가치를 정립시키려는 힘과 의지의 첫 분출, 자유로운 의지를 향한 의지”⁵⁵⁾가 나타난 시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자가 도달하려는 곳에 가치의 주체적 정립자인 주권적 개인이 위치한다. 그러나 주권적 개인의 등장은 자발적이라기보다 시대적 요청이자 허무주의적 상황에 의해 선택이 강요된 것이라는 데 그 비극적 성격의 본질이 있다. 니체가 허무주의를 불러온 이 최초의 해방을 “인간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하나의 병”⁵⁶⁾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정황에 근거를 두고 있다.

주권적 개인의 시대의 또 다른 이름은 가면의 시대이다. 자신이 만든 가치와 법칙에 먼저 복종하여 세계를 새로 만드는 자가 주권적 개인이라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개인의 세계는 일차적으로 인위적인 자신만의 세계이다. 그가 일정 기간 자신의 세계관을 고집해 나갈 때 그것은 타인에게 성격으로 비쳐진다. 그리고 파괴된 옛 가치의 폐허에서 잠정적으로 이리저리한 가면을 써 보는 일이 당장은 자유정신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다. “이른바 **성격이라는 가면들을** 쓴 인간들, 그들은 그들의 가면들을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⁵⁷⁾ 니체가 페리클레스의 민주주의 시대와 미국인들의 뻔뻔한 믿음과 관점이라고 비판하는 배우의 시대는 가치의 영역에서도 즉흥적 실험이 기꺼이 행해지는 시대이다.

“이런 시대의 개인은 자신이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거의 **모든 역할에 적합하다고** 확신한다. 누구나가 자기 자신을 가지고 실험하고, 즉흥적으로 실험하고, 새로이 실험하고, 기꺼이 실험한다.”⁵⁸⁾

55) 니체, 프리드리히,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I』, 니체전집 7, 13쪽.

56) 같은 곳.

57) 니체, 프리드리히, 『유고(1880년 초-1881년 봄)』, 니체전집 11, 6(407), 최성환 옮김, 책세상, 2004, 393쪽.

58) 니체, 프리드리히, 『즐거운 학문』, §356, 니체전집 12, 345쪽.

성실하게 가치를 실험하는 인간들의 주변에 스스로 만든 도덕과 가치가 진열되고 우선은 배우가 판치는 역할극의 시대가 이 시대의 특징이다. 절대적인 진리에의 믿음이 없기에 “배역과 가면과 가상 안으로 들어가려는 요구”⁵⁹⁾가 주도적인 충동이 된 상태가 배우의 상태이다. 그는 “새로운 상황에 항상 새로이 자신을 맞추고, 언제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순간에 적응한다.⁶⁰⁾ 거짓과 순간에 복무하는 현대인.... 그는 혼란의 와중에 있다. 두 개의 인격, 아니 다중 인격이 그의 영혼에 깃들여 있다. 전통과 미래에의 의지, 옛 가치와 새로운 가치, 노예도덕과 주인도덕이 그의 영혼을 전쟁터로 삼는다. 때론 이들 사이에 격투가 벌어지고 때로는 타협과 제휴, 애매한 공존상태와 연합전선도 형성된다. 그러나 오랜 전쟁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사람은 위험한 상황에 대해 점차 무감각하게 돼 간다. 현대인은 자신이 심연에서 줄 타는 자임을 잊어버리고 작은 안정과 성취에 안주해버린다. 망망대해를 날아가다 파선한 배의 마스트에 거짓 궁전을 짓고 다른 새들을 유혹하는 타락한 자유정신의 메타포는 피로에 지쳐, 시도하는 정신이기를 그친 허무주의 희생자들을 상징한다.⁶¹⁾

신의 죽음 후에 가치와 의미의 진공상태를 살아남기 위해 나타나는 실험하는 주권적 개인들에게 부여되는 속성들은 실제로 이전에 신에게 부여되던 속성들이다. 새로운 세계의 창조라는 엄청난 과업이 그의 어깨에 걸려있다. 근대 신비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야콥 뵘메(Jakob Böhme)는 존재가 유출되는 근거이기에 ‘無이자 모든 것인 신’의 자유를 영원한 시작으로 파악한다. 무가 “존재하는 어떤 것에 대한 병적 열망(Sucht nach Seiendem)”을 의미하기 때문이다.⁶²⁾ 마찬가지로 의미를 찾는 주권적 개

59) 니체, 프리드리히, 『즐거운 학문』, §361, 359쪽.

60) 같은 곳, 360쪽.

61) 니체, 프리드리히, 『아침놀』, §575, 니체전집 10, 박찬국 옮김, 책세상, 2008, 422쪽 참조.

인의 추구 역시 영원한 시작을 중요한 특성으로 갖는다. 주권적 개인의 다른 이름인 어린 아이 역시 영원한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

정신적 편력의 종점, 즉 어린아이로 상징되는 단계에 도달한 자유정신은 나중에 다른 곳에서 “주권적 개인” 혹은 “자율적이고 초윤리적인 개체”, “자유의지를 지배하는 자”라고도 표현된다.⁶²⁾ 다시 말해 주권적 개인은 유럽 허무주의 운동의 극점에서 나타난다. 근대성의 극복을 위해 몸부림치는 근대인의 모습이 유럽 허무주의 운동의 다른 이름이다.

근대를 근대로 만드는 본질은 개인의 나타남이다, 개인이라는 단어는 Individuum, 즉 나누어지지 않은 단독자를 의미한다. 세상의 주인이 스스로임을 자처하며 등장하는 이 개인은 타인과 나눌 수 없는 어떤 것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는 인간이다. 과학정신으로 무장하고 도구적 이성을 신봉하는 그는 세상의 개척자이고 주인이기를 원한다. 그러나 근대의 주체인 개인은 외롭다. 삶이 갖는 동물적 필요와 한계는 개인에게도 고유한 것이다, 개인은 처음부터 타인과 세계라는 외적인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특정한 입장과 관점을 취하고 자신을 관철시키려 노력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났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신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 개인은 부단히 다른 생명을 점유해야 하며, 생명이 뿜어내는 정신적인 활동들 까지를 포함하는 타인의 삶의 에너지를 자신의 논리와 의도에 따라 재구성하고 동화시키는 노력을 경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삶의 불공정성이 체화되어 부딪치는 생명의 공간이 개인들이 만들어 내는 세계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인식과 활동의 기초일 수밖에 없다. 공정하고 불공정한 모든 인식과 활동은 이 개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⁶⁴⁾ 근

62) Böhme, Jakob, *Mysterium pansophicum I, Sämtliche Schriften*, 1730, Bd. 4, Faksimilie der Ausgabe hrsg. von Will-Erich Peuckert, Frommann-Holzboog, Stuttgart, Bad Cannstatt, 1956, (5) 8, 97쪽 참조.

63) 니체, 프리드리히, 『도덕의 계보』, 니체전집 14, 397-398쪽.

대성을 뛰어넘고자 몸부림치는 근대의 비극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자신의 가치와 진리를 모두 자기 자신으로부터 만들어야 하는 자는 신이 차지했던 허무의 자리에 자신을 앉힌 자이다. 그는 자신을 통해 창조되는 새로운 가치와 질서의 세계 밖의 모든 것을 무화시키는 인간이자 파괴자이다. 최상의 것에 대한 희망이 포기되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니체는 가까운 것의 친구가 되라고 권한다. 이제까지 진리와 신처럼 요원하고 이승에서 찾기 어려운 것들에 쏟았던 정성을 우리와 함께 생기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들에게 다시 돌리라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대지에 대한 사랑은 가능한 것에 대한 성실함이다.

주권적 개인이 탄생하는 길에서 시험적으로 여러 가치를 걸치고 실험해보는 배우들과 주권적 개인의 관계는 차라투스트라가 경멸하고 구역질을 느끼는 “최후의 인간(der letzte Mensch)”⁶⁵과 “위버멘쉬”의 관계와 같다. 전자에서 후자으로의 도약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실존적 결단 그리고 디오니소스적 긍정을 통해 성취된다. 이런 저런 가치들을 잠시 걸치고 연기를 하는 배우들과 달리, 주권적 개인은 스스로에게 자신이 창출한 가치를 충실히 살아낼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주권적 인간에게 본능으로까지 성장하는 이 책임과 자유의식에 대한 자부심을 니체는 “양심”이라고 부르고 있다.⁶⁶ 니체가 “관습과 도덕과 사회적 강제라는 거대한 과정의 종점”⁶⁷이자 이 고통스럽고 지난한 인간화 과정의 “만숙한 열매”⁶⁸라고 부르는 주권적 개인은 인간의 자기부정, 생명의 자기부정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과 의지

64) 니체, 프리드리히, 『유고(1880년 초-1881년 봄』, 6(416), 니체전집 19, 396쪽 참조.

65) Nietzsche, Friedrich, *Also sprach Zarathustra*, KSA Bd. 4, dtv, de Gruyter, München, 1988, 18-21쪽 참조.

66) 니체, 프리드리히, 『도덕의 계보』, 398-399쪽 참조.

67) 같은 책, 397쪽.

68) 같은 책, 399쪽.

의 주인이 된 인간이다.

5. 나가는 글: 자신만의 이상을 설계하고 실현하기

그 무근거의 폭로에 의해 무의미해진 이상들은 단순하게 지성사의 한 장으로 역사화 되거나 화석화 되지 않는다. 정신의 세계에서는 추방이나 멸절은 없고 오직 힘의 재구성을 통한 새로운 의미의 부단한 건축이 있을 뿐이다. “관념과 지각 사이에 벌어지는 것은 실존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지배를 위한 투쟁이다 - 극복된 관념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억압되거나 종속된다. 정신적인 것 안에 파괴는 없다.....”⁶⁹⁾ 힘 경제의 전체 조직 안에 모든 동화된 힘을 생명의 고양을 위해 복무하도록 새롭게 기능을 부여해 쓰는 힘에의 의지의 원칙은 이념의 세계에도 통용된다. 물론 극복된 이상과 가치가 바로 다른 이상과 가치의 한 기능을 담당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이상과 가치가 나타날 때까지 정신의 권좌는 비어 있기도 하다. 이 공허함을 견디는 것은 주권적 개인이 가져야 할 덕목 중의 하나이다.

“이제까지의 인류의 이상주의 전체는 막 허무주의로 변하려 하고 있다 - 절대적 무가치성 다시 말해 무의미성에 대한 믿음으로..... 이상의 파괴, 새로운 황무지, 새로운 예술, 그것을 견디기 위해, 우리 양서류.

전제: 용기, 인내. ‘귀화’도 없고, 전진에 대한 열기도 없어야 한다. 주의. 차라투스트라, 늘 익살스럽게 이전의 모든 가치를 대한다. 충만함으로부터.”⁷⁰⁾

69) 니체, 프리드리히, 『유고(1885년 가을-1887년 가을)』, 7(53), 니체전집 19, 379쪽 이하.

70) 같은 책, 7(54), 니체전집 19, 381쪽.

자신의 노력과 고통, 실존 전체에 의미를 부여해 주던 지주를 잃는 것은 힘들고 슬픈 일이다. 니체가 그 공허를 견뎌야 하는 자에게 양서류 같은 인내를 처방하는 것은 인상적이다. 진정한 용기의 불가피한 요소인 인내(patientia)의 고전적 의미는 불행을 목전에 두고도 사태를 투명하게 직시하는 능력이다. 인내를 통해 인간은 무질서한 슬픔이 정신을 파괴하여 그 위대함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다.⁷¹⁾ 그러나 그 인내를 보상에 줄 어떠한 진리도 기대하지 않으며 파괴된 이상의 공허를 견디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차라투스트라가 충만함으로부터 이전 가치들을 확보된 놀이의 재료로 삼을 수 있기까지 보여주는 그의 깨달음과 극복의 과정의 지난함이 그 증거이다.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인간의 이상과 관련된 질문이다. 그것은 설정되거나 주어진 이상, 즉 모범에 도달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에 대한 물음이다. 민족과 국가, 종교와 철학, 혹은 정당 같은 특정 집단이 자신들이 도달하고자 노력해 온 특정한 범례와 이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질문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옛 가치가 사라진 허무주의의 시대에 이 질문은 더 이상 집단이성에 던져질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공적인 진리가 힘을 잃은 현대가 세울 수 있는 목표는 개인주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목표는 그러나 각자가 자신의 이상, 개인적인 모범을 설계하고 실현하는 것이다.”⁷²⁾ 니체는 이 새로운 개인적인 이상의 설계에 “모든 생산력”과 “자신의 힘에 대한 통찰과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⁷³⁾ 1880년대 초반 그가 아직 질문을 던지고 있을 당시, 니체는 인간이, 아

71) 양대중, 「윤리적 덕들의 위계질서에 대한 고찰 - 아퀴나스의 덕론에 나타난 마음의 구조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124집, 대한철학회, 2012, 210-211쪽 참조.

72) 니체, 프리드리히, 『유교(1880년 초-1881년 봄』, 7(53), 니체전집 11, 6(293), 356쪽.

73) 같은 곳 참조.

니 자신이 나아갈 바를 밝히는 자신만의 이상을 아직 갈무리해내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그의 생명력은 이 이상의 갈무리가 충동과 정열의 배제나 멀절이어서는 안 되며 전체성의 보존과 인식의 고양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듯하다.

“우리는 우리의 모범(Muster)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오류와 충동을 줄여서는 안 되며, 그것의 **세련된** 형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⁷⁴⁾

허무주의의 시대에 인간이라는 연약하지만 섬세한 나무가 여전히 위대성을 보일 수 있는, 아직도 허락된 방식은 자신 속의 정열, 충동을 포함하는 생명의 힘 전체에 방향과 고상한 형식을 부여하여 성격을 육성하는 일일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여 그것을 코스모스(Kosmos)로, 즉 질서 있는 유기체로 만드는 일이다.

인식의 최종목적이자 근거로 작용해온 ‘절대적 진리’의 가상성을 들여다본 인간이 “이 세상에는 가상과 도깨비불과 유령의 춤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⁷⁵⁾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인식이 계속된다는 것이 현대성의 문제이다. 가상진리로 밝혀진 큰 개념들이 보장해 온 의미의 문제와 인간 행위의 정향점에 대한 물음이 여전히 남는 것이다. 따라서 주권적 개인을 통한 정치한 가상과 삶의 규칙의 의도적인 생산이 이제 생명을 긍정하는 방식일 수 있다.

“이 모든 꿈속에서 ‘인식하는 자’인 나도 나의 춤을 추고 있다는 것, 인식하는 자는 이 지상의 춤을 오래 끌게 하는 수단이며, 그러한 현존재의 축제를 주최하는 자에 속한다는 것, 모든 인식의 송고한

74) 같은 책, 6(294), 357쪽.

75) 니체, 프리드리히, 『즐거운 학문』, § 54, 121쪽.

일관성과 결합은 아마도 꿈의 보편성과 모든 꿈꾸는 자들의 상호 이해, 그리고 **꿈의 지속을 유지시켜주는 최상의 수단**이라는 것을 나는 느낀다.”⁷⁶⁾

허무주의의 핵심인 절대적 진리의 가상성에 대한 인식, 즉 “세계의 가치가 우리의 해석에 놓여 있다”⁷⁷⁾는 사실은 그 이면에 우리가 해석을 멈추지 않는 한 세계의 가치와 의미는 무궁하다는 통찰로 연결된다. 니체철학을 관통하고 있는 해석학적 직관, 즉 “인간의 모든 고양은 편협한 해석들의 극복을 수반하고, 성취된 모든 강화와 권력 확대는 새로운 관점들을 열어 놓는다”⁷⁸⁾는 확신은 더 이상 수동적 허무주의에 패한 자의 철학이 아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생명의 본령인 해석을 수행해 나가며 자신의 주위에 의미의 그물망을 짜는 새로운 신의 외침에 다름 아니다.

인간에게 허락된 고귀함의 세련된 형식에 대한 니체의 단상도 의미진공 상태의 현대에 옛 가치들이 폄하해 온 삶의 규칙을 찾아 세우고 이를 옹호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가깝고 필수적인 것, (인간이라는) 종을 유지시키는 데 가장 유용한 것과 규칙일반 (.....) 규칙의 옹호자가 되는 것 - 아마도 이것이야말로 지상에 고귀함이 현현하는 최후의 세련된 형식이 될지도 모른다.”⁷⁹⁾

니체는 허무주의를 둘러싼 의미의 문제가 얼마나 큰 과급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숙지하고 허무주의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다. 인류의 운명이 정향할 어떠한 확실한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착종된 길과 무지한 자의 두려운 자유가 시작된다. 이렇게 철학적 탐험을 위해 승선하라는 니체의 구호는 인간의 실존 전체가 걸려있는 심오한 차원을 획득한다.

76) 같은 곳.

77) 니체, 프리드리히, 『유고(1885년 가을-1887년 가을』, 2(108), 니체전집 19, 141쪽.

78) 같은 곳.

79) 니체, 프리드리히, 『즐거운 학문』, § 545, 122쪽

그래서 니체는 “악마나 귀신 혹은 이성과 인간성의 고의적인 파괴자가 아니라, 명백히 ‘불쌍한 돼지새끼’, 섬세하고 다치기 쉬우며 많이 다친, 사람의 자식이다. 그가 특별히 불쌍한 것은 그가 우리 시대의 가장 나쁜 측면에 대한 인식, 즉 허무주의를 자신의 십자가로 짊어졌기 때문이다.”⁸⁰⁾ 그러나 니체는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거나 기진하여 죽기를 원하지는 않았다. 인류가 맞이한 위험한 의미의 위기인 허무주의는 인간이 그것 때문에 멸망하지 않으려면 인간의 힘으로 극복되어야만 한다. 니체의 신랄한 비판이후에 옛 가치와 이상으로 돌아갈 길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더 적합한 건강한 세계를 다시 찾을 희망을 가지고 니체는 자신을 “유럽 최초의 완전한 허무주의자”이자 “허무주의를 이미 자신의 내부에서 끝까지 체험해본 자”, “허무주의를 자신의 뒤에, 자신의 밑에, 자신의 밖에 두는 자”라고 부른다.⁸¹⁾ 이것은 자신이 근대의 위기와 공허를 목도하고 살아냈으며 자신의 생명과 책임을 걸고 이를 극복하려 시도했다는 고백이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주권적 개인으로서 먼저 자신이 만든 준칙에 복종하고 그 가치가 주장하는 이상의 내용을 자신의 삶에 일관되게 적용해 자신과 세계를 정합적인 우주로 만들었다는 고백인 것이다. 실제로 그가 만들어내고 자신의 웅변적인 삶과 글쓰기를 통해서 살아낸 가치들은 많다. 주권적 개인, 미래의 철학자, 위버멘쉬, 어린아이 등으로 표현되는 강한 의지와 책임감을 가진 가치 정립의 주체, 영겁희귀와 운명애(amor fati), 생성과 생명에 대한 디오니소스적 긍정 등이 그가 그것을 통해 당대의 허무주의의 심연을 강장하게 넘어간, 그의 낙관이 찍힌 가치들이다. 뒤에 남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또 다른 우리만의 태양을 올리고 인식의 춤을 통해 생명의 꿈을 지속하는 일일 것이다.

80) Mauer, Reinhart Klemens, “Der andere Nietzsche: Gerechtigkeit kontra moralische Utopie”, in: *Aletheia*, Heft 5, Aletheia Verlag, Berlin, 1994, 11쪽.

81) 니체, 프리드리히, 『유고(1887년 가을-1888년 3월)』, 니체전집 20, 518쪽.

신이 된 인간에게 가능한 것은 의외로 많다. 꿈을 꾸는 능력, 즉 자신과 종족의 미래를 재단하고 준비하는 능력이 그 중의 하나이다. 그는 심연위에 생기하는 생명을 긍정하고 이들을 의미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자신의 능력을 극점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높고 고상한 문화에 대한 동경, 고유한 삶의 영역을 가진 탁월한 개인들이 지속적인 자기극복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정선된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 그가 꾸는 꿈의 하나이다.⁸²⁾

82)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희망인 고상한 문화와 교육의 관계에 대한 니체의 생각에 대해서는: 양대중, 「교육적 욕망의 진위에 대하여 - 니체의 교육론과 민주주의 비판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44집,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11, 97-139, 특히 120쪽 이하 참조.

참고문헌

- 김주휘, 「니체와 야누스적 근대」, 『니체연구』 제20집, 한국니체학회, 2011.
- 니체, 프리드리히,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I』, 니체전집 7, 김미기 옮김, 책세상, 2005.
- _____, 『아침놀』, 니체전집 10, 박찬국 옮김, 책세상, 2008.
- _____, 『유고(1880년 초-1881년 봄)』, 니체전집 11, 최성환 옮김, 책세상, 2004.
- _____, 『즐거운 학문』, 니체전집 12, 안상찬·홍사현 옮김, 책세상, 2005.
- _____,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전집 13, 정동호 옮김, 책세상, 2010.
- _____, 『선악의 저편』, 니체전집 14, 김정현 옮김, 책세상, 2009.
- _____, 『도덕의 계보』, 니체전집 14, 김정현 옮김, 책세상, 2009.
- _____, 『안티크리스트』, §18, 니체전집 15, 백승영 옮김, 책세상, 2009.
- _____, 『유고(1882년 7월-1883/84년 겨울)』, 니체전집 16, 박찬국 옮김, 책세상, 2005.
- _____, 『유고(1885년 가을-1887년 가을)』, 니체전집 19, 이진우 옮김, 책세상, 2005.
- _____, 『유고(1887년 가을-1888년 3월)』, 니체전집 20, 백승영 옮김, 책세상, 2005.
- _____, 『유고(1888년 초-1889년 1월 초)』, 니체전집 21, 백승영 옮김, 책세상, 2006.
- 양대중, 「니체 철학에서 본 생명의 문제」, 『철학연구』 제39집,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10, 103-130쪽.
- _____, 「교육적 욕망의 진위에 대하여 - 니체의 교육론과 민주주의 비판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44집,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11, 97-139.

- _____, 「윤리적 덕들의 위계질서에 대한 고찰 - 아퀴나스의 덕론에 나타난 마음의 구조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124집, 대한철학회, 2012, 195-218.
- _____, 「 비극의 탄생」과 아리랑에 나타난 치유의 구조」, 『마음과 마음 - 동서 마음 비교』, 마음인문학 학술총서 5,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공동체, 2013, 119-155쪽.
- 이진우, 「21세기와 허무주의의 도전 - 니체 사유의 전복성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대응」, 『범한철학』 제21집, 범한철학회, 2000, 77-101쪽.
- Baumgarten, Alexander Gottlieb, *Metaphysica*, 3. Auflage, Halle, Magdeburg, 1750.
- Böhme, Jakob, *Mysterium pansophicum I, Sämtliche Schriften*, 1730, Bd. 4, Faksimilie der Ausgabe hrsg. von Will-Erich Peuckert, Frommann-Holzboog, Stuttgart, Bad Cannstatt. 1956.
- Camus, Albert, *Der Mensch in der Revolte*, Rowohlt, Hamburg, 1969.
- De la Cruz, Juana Inés, *Obras completas*, hrsg. von J. V. Rodriguez, Madrid, 1980.
- Duns Scotus, *Lectura, Opera. Omnia*, Civitas Vaticana, XVII.
- _____, *Ordinatio, Opera. Omnia*, Civitas Vaticana. VI.
- Heftrich, Eckhardt, “Moral - das komplexe Gebilde” in: *Nietzsches tragische Größe*, Vittorio Klostermann, Frankfurt am Main, 2000.
- Heidegger, Martin, “Was ist Metaphysik”, in: *Wegmarken*, Vittorio Klostermann, Frankfurt am Main, 1976.
- Jaspers, Karl, Nietzsche. *Einführung in das Verständnis seines Philosophierens*, Walter de Gruyter, Berlin, 1947.
- Kant, Immanuel, *Kritik der reinen Vernunft*, Werke in Zehn Bänden, Bd. 3,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stadt, 1983.
- Klinger, Friedrich Maximilian, *Betrachtungen und Gedanken über*

- verschiedene Gegenstände der Welt und der Literatur, Zweiter Teil, Sämtliche Werke Bd. 12, Cotta, Stuttgart und Tübingen, 1842.*
- Löwith, Karl, *Von Hegel zu Nietzsche. Der revolutionäre Bruch im Denken des neunzehnten Jahrhunderts*, Felix Meiner, Hamburg, 1995.
- Mauer, Reinhart Klemens, “Der andere Nietzsche: Gerechtigkeit kontra moralische Utopie”, in: *Aletheia*, Heft 5, Aletheia Verlag, Berlin, 1994.
- Nietzsche, Friedrich, *Also sprach Zarathustra, Kritische Studienausgabe (=KSA) hrsg. von Giorgio Colli und Mazzino Montinari, Bd. 4, dtv, de Gruyter, München, 1988,*
- Nietzsche, Friedrich, *Nachgelassene Fragmente 1882-1884, KSA Bd. 10, dtv, de Gruyter, München, 1988.*
- Ottmann, Hennig, *Philosophie und Politik bei Nietzsche. Monographien und Texte zur Nietzsche-Forschung, Bd. 17, Berlin, New York, 1999.*
- Picht, Georg, *Nietzsche*, Klett-Cotta, Stuttgart, 1988.
- Seneca, Lucius Annaeus, *Epistulae morales ad Lucilium.*
- Vonessen, Franz, *Krisis der praktischen Vernunft. Ethik nach dem “Tod Gottes”*, Südmarkverlag, Heidenheim, 1988.

Die geistige Einstellung zu dem Nihilismus - fokussiert auf die Philosophie von F. Nietzsche

Yang, Dae-Jong (Wonkwang Univ.)

Das Hauptanliegen der modernen Philosophie ist das Problem des Sinns, d.i. das Problem von der Deviation der traditionellen Werten und von der neuen Wertschöpfung. Der Mensch nimmt das Leiden gerne hin, wenn es für ihn sinnvoll ist. Nur die Andauer des sinnlosen Leidens ist problematisch. Der Nihilismus ist das Symptom einer noömatischen Krankheit aufgrund der Entwertung der alten Werten und des Sinnverlustes als deren Folge, welche bis dahin die menschlichen Handlungen begründet hatten.

Die vorliegende Arbeit betrachtet den Grund und die Geschichte des europäischen Nihilismus, den Nietzsche diagnostiziert, sowohl als ein notwendiges Ereignis als auch als ein philosophisches Desiderat für die weitere Existenz der Menschheit. Die Möglichkeit von der Überwindung der negativen Konnotation der Modernität in dem Postmodernismus bzw. dem Transhumanismus hängt von der Klärung dieses Sinnproblems ab. Wir prüfen anhand der Philosophie von F. Nietzsche die Überwindungsmöglichkeit des Nihilismus, der auf dem Weg zur gesunden und erhabenen Kultur als der Stolperstein seine Rolle spielt.

Key words: Nietzsche, Nihilismus, das souveraine Individuum, Moral, Wert

허무주의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 - 니체 철학을 중심으로 / 양대종

양대종 e-mail: beroberlin@gmail.com

투 고 일	2014년 04월 14일
심 사 일	2014년 04월 27일
게재확정	2014년 05월 13일